

## 한국 정신지체 특수학교 교육과정 변천사 연구

- 초등부 음악과를 중심으로 -

이 숙\*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전공 박사과정

이 난 복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전공 박사과정

### 《요 약》

이 연구는 정신지체 특수학교 교육과정이 처음으로 제정 및 개정된 1차부터 4차까지의 정신지체 특수학교 초등부 음악과 교육과정의 발달사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정신지체 특수학교 초등부 음악과 교육과정 및 음악교과 내용의 변천과정과 음악교과 적용에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음악교과가 나아갈 방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서 정신지체 특수학교 음악교과 교육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주제어 : 정신지체 특수학교 교육과정, 음악교과 변천, 음악교과 내용, 음악교과 문제점, 방향성

## 1. 서론

음악과 지능의 관계를 연구한 가드너가 제안하였듯이 심신의 균형발달을 이루기 시작하는 아동기의 음악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전인교육을 위해 아동기 음악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오르프, 달크로즈, 코다이는 음악이 인간의 총체적인 발전에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음악교육의 목적은 음악을 통하여 인간적 성장을 도모하고 창의적 표현 능력을 신장·배양시키는데 의의가 있으며, 인간의 미적 감수성을 최대로 발달시킴으로서 개인으로 하여금 음악예술을 통해 자아성취를 이룩하여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것에 있다. 따라서 개개인으로 하여금 타고난 재능과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달시켜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학교교육 현장에서 각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음악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심한 장애를 가지고 있어 교육에 제한이 많은 훈련가능 및 중증 정신지체아의 긍정

\* 교신저자(leesukok@hanmail.net)

적인 정서함양을 위해 음악교육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신지체아들은 성공에 대한 기대감이 적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더 많이 느끼게 된다. 그러므로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정신지체아의 인지, 정서, 그리고 기초생활능력의 함양을 위해 이들의 특수한 특성을 최대한으로 고려한 전문적인 음악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특수교육 현장에서 대두되고 있다. 정신지체 아동의 음악교육은 그들의 필요에 따른 전문적 음악의 사용을 통해 교육목적 달성 뿐 아니라 긍정적 정서 및 성취감을 제공해줌과 동시에 다른 교과를 보다 더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야 한다. 따라서 정신지체 특수학교 아동에게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음악적 접근 및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현재 특수학교 음악교과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으며, 문제점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이란 교육을 주도하는 기관이 교육목적에 따라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수립하는 지식과 경험을 포함한 모든 교육내용의 사전계획과 기대하는 결과로 정의할 수 있다(이성호, 2004, p.25). 또한 교육과정을 시행하는 학교교육은 인간성장에 필요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교육과정에 의해 수행된다. 이러한 학교교육은 학습자에게 효율적이고 적절한 교육을 이치에 맞게 적용하기 위해서 학습자가 지니고 있는 조건과 발달 특성에 근거한 교육내용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교육내용은 그 구조나 거기에 담겨진 지식이나 경험의 질과 그 내용을 어떻게 수업자료로 전환시키는가에 따라 교육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대구대학교 특수교육연구소, 1996, p.22). 그러므로 인지적 제한이나 신체적 제한으로 인해 일반학교 교육과정을 수용하지 못하는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학교 교육과정은 일반학교 교육과정과는 매우 다르다. 특수학교 교육과정은 지적인 접근보다는 생활경험, 사회적응, 그리고 직업적응에 초점을 두어서 경험교육과정을 통한 실제적 문제해결 능력에 초점을 두고 있다(대구대학교 특수교육연구소, 1996, p.2).

따라서 정신지체 특수학교 음악교과 교육은 각 필요에 따른 교육과정의 제정 및 개정, 담당 교사를 위한 효율적인 음악교육 교수법, 학습자료 개발, 그리고 교육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가능해진다. 정신지체 특수학교 음악교과 교육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고, 교육과정이 개정되어 오고 있지만 특수학교 음악교육 수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다. 특수학교 음악수업과 관련된 연구인 임은정(1997)의 연구에 따르면, 음악적 내용이 불충분하여 학생들의 정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음악교과서 및 음악교과를 담당하는 전문교사의 부족으로 인해 음악수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므로 음악수업을 최대한 구조화하여 음악활동 안에서 이들이 성공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게 하고, 원활한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음악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전국의 특수학교 중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음악교과 수업에 있어서 일반학교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는 다른 특수(청각장애, 시각장애, 지체부자유)학교와 달리 음악교과서가 발간되어 사용되고 있는 정신지

체 특수학교의 음악교과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 오고 있는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정인지체 특수학교 음악교과 교육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정인지체 특수학교 초등부 음악과 교육 과정이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지, 음악교과 내용이 어떻게 발달되어왔는지, 그리고 음악교과 적용에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앞으로 음악교과가 나아갈 방향을 알아볼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정인지체 교육과정의 1차에서 4차까지 음악과 교육과정을 토대로 하였다. 일반학교 교육과정은 7차까지 교육과정이 제정 또는 개정되었으나 정인지체 특수학교 교육과정은 4차까지 제정 또는 개정되어 일반학교와 정인지체 특수학교의 교육과정 차수에는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교육부(1999, p.17)의 특수학교 교육과정 총론에 의거하여 정인지체 특수학교 교육과정 차수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1차-1974년 1월 31일, 문교부령 제 334호(초등부), 2차-1983년 12월 31일, 문교부 고시 제 83-13호(초. 중. 고등부), 3차-1989년 12월 29일, 문교부 고시 제 89-10호(유. 초. 중. 고등부), 4차-1998년 6월 30일, 교육부 고시 제 1998-11호.

## II. 본 론

### 1. 정인지체 특수학교 음악과 교육과정의 변천

교육과정 목적을 기준으로 한 음악과 교과과정은 실제 음악교과 교육에 있어서 무엇을 다루어야 하고, 어떤 내용을 선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제시해준다. 음악과 교육과정 발달 및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음악과 교육과정 제정 및 개정에 참여한 연구진들의 직업배경과 소요 시간, 음악과 교육과정의 목적, 음악교과를 위해 배정된 시간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 정인지체 특수학교 음악과 교육과정은 특수학교 교육과정의 목적을 기준으로 하여 설정된다(이성호, 2004). 교육과정은 교육을 이끌어가는 기본계획으로 교육을 통하여 추구하는 인간상을 비롯하여 각급 학교의 교육목표, 편제와 교과목 시간배정, 그리고 운영지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육과정은 고정된 불변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시대 및 사회의 변화와 교육이론의 발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정되어야 하며, 현행 교육과정을 평가·분석하여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체계적인 노력을 요구한다. 따라서 이를 위해 음악 교과과정의 변천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

#### 1) 음악과 교육과정 제정 및 개정 참여 연구진의 직업배경

우리나라 정인지체 특수학교 음악과 교육과정은 1차(1974년), 2차(1983년), 3차(1989

년), 4차(1998년)에 걸쳐 이루어져왔으나, 독자적으로 음악과 교육과정이 이루어진 것은 단지 4차 교육과정에서였다. 어느 교과나 제정 및 개정작업에 참여한 연구진들의 직업 배정은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음악과 교육과정의 경우도 같은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문교부(1970, p.14)에 따르면, 1차 교육과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은 1970년에 구성되었으며, 1차 교육과정을 위한 심의위원회에 참여한 위원회 명단에 따르면 특수학교 행정가(서울 5명, 지방 5명), 특수학교 교원 3명, 특수교육 전문가인 대학교수 3명(특수교육 전문가, 교육과정 전문가), 문교부 장관 1명, 그리고 문교부 편수관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참여자가 특수교육 전문가임을 알 수 있다. 2차 교육과정은 1차와 달리 연구진과 협의진으로 구성진을 나누어, 보다 더 전문성을 띠하였다. 연구진은 모두 특수교육을 지도하는 대학교수로 구성되었으며, 제정 및 개정에 참여한 협의진은 특수학교 교사들로 이루어져있음을 볼 수 있으며 명단은 다음과 같다(대구대학교 특수교육연구소, 1982, p.138): 책임연구원-이상춘(대구대학교); 연구진-고은애(한국실업전문대학 학장), 김동극(수원자애학교), 김정권(대구대학교), 김홍주(대구교육대학), 양영석(부산혜성학교), 유상덕(대구보명학교), 여광웅(대구대학교), 원명욱(대구보명학교), 이희동(경북도교육연구원), 정봉도(대구대학교), 조연수(전주우석대학), 조현국(대구보명학교), 최영하(대구대학교); 협의진-김원경(대구남양학교), 김정원(대구보명학교), 남상호(대구남양학교), 남우석(대구보명학교), 박영희(대구보명학교), 배중웅(대구남양학교), 백춘실(대구남양학교), 이갑덕(대구보명학교), 이수창(대구보명학교), 이연준(광주선명학교), 이유훈(대구보명학교), 이주남(대구남양학교), 이하형(대구남양학교), 임병태(진주해광학교), 윤광보(대구보명학교), 전영명(대구남양학교), 정남근(대구보명학교). 또한, 2차 교육과정 제정 및 개정 작업은 약 1년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대구대학교 사범대학 특수학교 교육과정 개정관리위원회, 1982, p.2). 대구대학교 특수교육연구소(1987, p.3)에 따르면, 3차 교육과정 제정 및 개정 연구진은 대부분 특수교육을 지도하는 대학교수들(김정권-대구대학교, 김승국-단국대학교, 이규식-대구대학교, 이상춘, 안병즙)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제정 및 개정 작업에 소요된 기간은 약 2년 정도였다. 이전의 교육과정과는 달리 제정 및 개정의 중점 및 주요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학생, 부모, 교사, 그리고 사회적 요구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필요에 맞춰 개정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4차 교육과정은 공동연구원과 협력연구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동연구원은 특수교육을 지도하는 대학교수, 특수교사, 교육부 담당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협력연구원은 특수학교 교사들로 구성되었음을 볼 수 있다. 대구대학교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 연구회(1997, p.208)에 따른 명단은 다음과 같다: 연구책임자-김정권(대구대학교); 공동연구자-여광웅(대구대학교), 이태화(동현학교); 교육부담당자-양순열(교육과정 담당관실); 협력연구진-장형진(은평복지원), 최하림(한국구화학교), 김춘옥(새열학교); 협의진-정동영(국립특수교육원), 김은실(순천전혜학교), 김성애(국립특수교육원). 또한 4차 교육과정의

제정 및 개정 작업에 필요한 소요기간은 1년 6개월 정도였으며 이전과 달리 30회의 모임을 통해서 각론 개발지침과 각론 개발에 관한 협의 음악과 교육과정을 위한 공청회 참석, 책임자 협의회, 연구진 협의회, 각론 시안 제출, 각론시안 완성, 각론 시안 재수정, 연구진과 협의진 협의, 교육부 심의회, 그리고 연구진 협의회를 거쳐 완성되었다(대구대학교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연구위원회, 1997, pp.231-233). 따라서 4차 교육과정에서야 비로소 이전의 교육과정과 달리 처음으로 음악교과 교육만을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확립하고자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조사를 통해 본 바와 같이 교육과정이 점차 발전되고 있으며 전문화된 연구진이 교육과정에 참여함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각 음악과 교육과정 제정 및 개정작업의 연구진들은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수, 특수교사, 교육부 특수교육 담당이 참여하였음을 볼 수 있다. 또한 4차 제정 및 개정까지 음악교육과 특수교육을 함께 전공하여 특수아동 음악교육에 대해 전문적으로 연구해온 연구진은 참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2) 음악과 교육과정의 목적

우리나라 정인지체 특수학교 음악과 교육과정은 정인지체 특수교육과정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1차 교육과정은 생활중심 교육과정이며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기 위한 정신의 조화적 발달을 도모하는 데 있다. 이 시기의 음악과 교육은 1차 교육과정의 목적에 따라 예능활동을 통해 개인 및 집단생활을 즐기는 태도를 기르며, 음악적 표현활동을 통해 학교와 가정에서 스스로 즐거운 생활 태도를 기르는데 있다. 또한 음악활동을 통해 자유롭게 창의적인 표현기능을 기르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음악교육의 목적이 음악활동을 통해 즐거운 생활태도를 갖고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차 정인지체 특수학교 교육과정은 훈련가능과 교육가능으로 분류하였으며, 훈련가능 정신박약아 교육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능력을 가지게 하고, 장애극복을 위한 초보적 기능과 바른생활 태도를 길러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위한 바탕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또한 교육가능 정신박약아 교육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능력을 기르고 바른생활 태도를 형성하여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차 교육과정 초등부 음악과 교육과정 또한 아름다움을 느끼고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함으로써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꾀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2차 교육과정은 1차와 유사하게 생활중심 교육과정을 강조하고 있으며, 음악교육을 통해서 생활에 필요한 기본능력을 향상시키고, 자신의 생각을 음악 안에서 자유롭게 표현함으로써 건전한 일상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한편, 3차 정인지체 특수학교 교육과정 목적의 특징은 학년편성을 무학년제로 한다는 원칙 하에 발달수준 및 능력별로 내용을 달리하는 수준별 편성을 시도하였다. 3차

교육과정 목적은 신변문제를 스스로 처리하고 기본적인 언어표현력 기르기, 수량의 기초개념 습득과 기초체력 신장을 통해 건강한 생활태도를 가지게 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또한, 예능교육은 음악과 조형 활동을 통해 즐겁고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기능을 기르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정인지체 특수학교 3차 교육과정 초등부 음악과 교육과정의 목적은 음악활동을 통하여 즐거움을 느끼고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기초적인 기능을 가지게 하는데 두었다. 실제로 3차 교육과정은 발달수준과 능력별 수준에 따라 편성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며, 음악교육도 마찬가지로 교육가능, 훈련가능(저학년, 고학년)으로 구분하여 교과과정을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다.

또한 4차 정인지체 특수학교 교육과정의 목표는 기초생활 능력과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도모하고 진로개척 능력을 개발하며, 장애극복 의지를 길러 건전한 사회인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 4차 교육과정 초등부 예능교과 교육과정의 목표는 일상생활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이를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가짐으로써 풍부한 정서 생활을 즐길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데 있다. 4차까지의 교육과정은 생활 중심을 강조하고 있으며 음악과 교육과정은 음악활동의 즐거운 경험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장애를 극복하고자 하는 동기와 성취감을 향상시킴으로 건전한 심신을 기르고자 하는데 중점을 두었음을 알 수 있다.

### 3) 음악교과 시간배당

정인지체 특수학교에서의 예능교과의 중요성은 시간배당을 통해 알아 볼 수 있다. 교과편성에 있어서 예능은 음악과 미술을 통합하여 교사가 지도하도록 하였으며, 4차에 걸친 교육과정 제정 및 개정을 통해 예능교과의 시간 배당은 약간의 변화를 보였다.

1차 교육과정 예능시간 배당에 있어서 저학년(주당 4시간), 중학년(주당 2시간), 고학년(주당 3시간)으로 배정되어 있었다. 2차의 예능시간은 훈련가능 저학년(주당 20시간), 고학년(주당 7시간)으로 배정되어 있으며 특히 저학년의 경우 예능 지도가 필수적임을 볼 수 있다. 또한 교육가능 저학년(주당 6시간), 고학년(주당 7시간)으로 배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1차 때보다 예능교과 시간이 더 많이 배정되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3차 교육과정 시간 배정은 교과별로 시간을 배정한 것이 아니라, 생활과 교육, 특별활동 그리고 예능을 모두 포함해서 시간 배정을 정하였다. 이는 교사가 장애아동의 개별화 교육에 맞도록 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배정하였으며 학생의 능력이나 수준에 맞게 교사가 조절할 수 있도록 배정하였다. 4차 예능시간 배당에 있어서 건강과 예능을 포함해서 주당 6-7시간으로 배정하였다. 이는 2차 저학년의 경우를 제외하고 2차, 3차, 그리고 4차 모두에서 배당 시간의 차이가 많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 2. 정인지체 특수학교 음악교과 내용 발달

우리나라 최초의 정인지체 학교는 1966년 대구보명학교가 설립되었으나 음악교과와 관련된 음악교과서는 학교 설립이후 35년 후인 2000년에 처음으로 발간되었다. 1974년 이전에는 정인지체 특수학교 교육과정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맹학교와 농학교 교육과정을 참고하여 사용하였다. 그 당시 맹학교와 농학교는 교과수업으로 음악수업이 있었기 때문에 정인지체 학교에서도 음악수업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나(문교부, 1970, p.3), 그 당시에 사용된 음악교과서를 찾을 수가 없었다. 1979년 이전 자료를 찾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특수학교에 전화를 걸어서 교재의 소장 여부를 알아보았으나, 소장되어 있는 학교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1979년 이전 자료를 소개할 수 없으며 1979년 이후의 자료를 소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1974년 정인지체 특수학교 교육과정이 처음으로 공포되면서 음악과 교육과정의 목표가 제시되었으나 실제로 정인지체 아동을 위한 교과서는 제작되지 않았다. 정인지체 학생을 위한 음악교재는 1978년까지 별도로 준비된 것이 없었는데 1979년에 시범 교재가 준비되었다. 1979년 문교부가 대구 남양학교에 위촉하여 정박아 음악교재를 제작하여 각 정박아 학교에 배부하였다(김인숙, 1982). 이후에 1989년 대구대학교 특수교육연구소에서 정인지체 학생을 위한 예능 교사용 지도서가 발간되어 정인지체 학교에서 사용되었다. 최근 들어 교육과정이 발전되면서 2000년 정인지체 특수학교 기본교육과정으로 예능 교과서가 처음으로 출간되었다.

### 1) 1979년 문교부가 대구 남양학교에 위촉하여 만든 정박아 음악교재

1979년도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음악교재는 교육과정에 맞추어 국민학교 과정을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으로 나누어서 만들었다. 이 음악교재는 남양학교에서 제작하여 전국에 있는 정인지체 학교에 보급되었으나, 조사에 따르면 이 시범 교재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인숙, 1982). 원인은 정박아의 특성 및 능력을 고려하여 새로이 제작된 것이 아니고 현행의 국민학교 음악교과서에 몇몇 곡들을 선정하여 정리한 것에 불과했기 때문이다(김인숙, 1982). 곡목 선정에 있어서 일반국민학교 교과서 내용을 학년 수준을 낮춰서 그대로 사용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음역에 있어서 정인지체아의 음역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국민학교 교과에 나타난 음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박자의 개념은 4분의 4박자, 4분의 2박자에서, 그리고 고학년에는 8분의 6박자를 지도한 것을 볼 수 있다.

### 2) 1989년 대구대학교 특수교육연구소에서 출판된 예능교사용 지도서

1989년 출판된 예능교사용 지도서는 1979년 만들어진 시범교재보다 좀 더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대구대학교 특수교육연구소(1989)에 따르면, 1989년 출판된 예능교사용 지도서는 교육과정에 맞추어 음악교과 내용을 초등부 교육가능과 훈련가능으로 구

분하여 내용을 정리하였다. 3차 교육과정에 속하는 예능 교육과정은 가창, 기악, 창작, 감상의 영역으로 구분되었으며 우리의 주변에 있는 자연의 소리를 탐구하고 그림악보를 사용해 좀 더 쉽게 악기를 연주하도록 유도하였다. 표현에 있어서 흥내 내기의 기본적인 활동을 통해 음악 안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도록 유도하였다. 또한 주변 자연 현상에 흥미를 갖도록 구성하였는데, 이는 교육과정과 음악과 교육과정의 목표가 음악교육 내용과 일치함을 보여준다.

정신박약아 초등부 훈련가능 예능교사용 지도서는 음악교육을 표현활동과 감상활동으로 나누었다. 표현활동은 듣고 부르기, 음악에 맞춰 간단한 몸짓하기, 음악에 맞춰 동물 특징 흉내 내기로 구성되었다. 이는 음악교육 교과목표와 일치하며 소리 흉내 내기, 몸짓, 노래부르기, 감상을 통해 즐겁고 명랑한 생활태도를 갖도록 하는 특수학교 교육과정 목표와 일치함을 볼 수 있다(대구대학교 특수교육연구소, 1989).

정신박약아 초등부 교육가능 저학년 예능교사용 지도서는 음악교육을 표현활동과 감상활동으로 나누어서 제시하였다. 교육가능 교과서는 훈련가능 아동을 위한 교과서보다 음악적 요소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표현활동은 음악소리에 흥미 갖기(자연의 소리, 친구들 노래 소리에 흥미 갖기)와 소리의 구별(높은소리와 낮은소리 구별, 긴소리와 짧은 소리 수별, 센소리와 여린소리 구별)과 모방(자연소리 모방)하기였다. 감상활동으로는 즐거운 마음으로 노래를 듣기, 리듬 치며 음악듣기, 기악곡 듣고 악기 가려내기, 그리고 연주 광경을 보고 악기연주하기를 제시하고 있다.

정신박약아 초등부 교육가능 고학년 예능교사용 지도서는 음악교육을 표현활동과 감상활동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표현활동은 저학년과 유사하였으며, 감상활동은 저학년보다 좀더 질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구성되었다. 감상활동은 가사 내용과 박자에 관심을 갖고 음악 듣기, 리듬 치며 조용히 듣기, 즐거운 음악과 슬픈 음악을 구별하기 그리고 우리나라 민요 듣기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여러 가지 악기 알기(건반악기, 현악기, 관악기), 여러 가지 악기로 연주한 감상곡 듣기(구슬비, 인디언 춤, 위모레스크, 소풍), 우리나라 전통악기 알기, 감상하기(농악 악기), 여러 가지 음악 듣고 느낌 말하기(가을소풍, 가보트, 겨울놀이, 바람개비)를 통해서 다양한 음악을 접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3) 2000년 교육부에서 발생한 최초의 기본교육과정 예능 교과서

정신지체 특수학교 기본교육과정으로 처음으로 출간된 예능 교과서는 1, 2, 3으로 구분 되어 있으며 학년별 구분을 없애고 10학년제를 도입하여 학생의 능력에 맞게 선택해서 지도하도록 구성되었다(교육부, 2000). 박혜은(2002)의 연구에 따르면, 지금까지 사용된 음악교재와 가장 큰 차이점은 전래동요와 민요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이다. 예능 1(18.8%), 예능 2(19.3%), 그리고 예능 3(12.7%)의 전체 곡목에서 전래동요와 민요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졌음을 볼 수 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예능 1에서는 오선 악보를 사용하지 않고 정신지체아들이 악보를 쉽게 볼 수 있도록 3선 악보, 4선 악

보, 그림악보를 사용한 점이다. 예능 2에서는 예능 1에 비해 동요가 줄어들면서 외국곡의 사용이 늘었으며, 조성에 있어서도 바장조와 사장조, 그리고 내림나장조로 확장되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박자에 있어서도 9/8박자와 12/8박자의 겹박자가 사용되면서 예능 1보다 한 단계 위의 음악교과를 담으려는 의도를 보였다(박혜은, 2002). 예능 3은 교과서의 제재곡이 47곡으로 더 많은 곡을 수록하였으며, 우리나라 곡이 23곡, 외국곡이 18곡, 감상곡이 6곡의 비율로 나타났다. 특별한 점은 우리나라의 민요뿐 아니라 12곡의 외국 민요를 소개하는 있는 점이다. 또한 조성에 있어서도 라장조와 내림마장조의 사용으로 더 폭넓은 조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박혜은, 2002).

### 3. 음악교과 적용에서의 문제점

정인지체 특수학교 기본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예능교과서가 처음으로 출간되었으나, 실제적으로 현직 교사들이 사용하는 데는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교과서 집필진으로 참여한 이태화 교장선생님에 따르면(2006년 12월 4일 전화통화), 새로 출간된 예능교과서는 그동안 음악교육 교사들이 각자 나름대로 만들어서 사용하던 교과내용과 공통점이 없었기 때문에 음악교육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출간되었음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특수학교 음악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교과서 출간에 참여한 연구진과의 인터뷰, 현재 특수학교 음악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과의 전화 인터뷰, 학위 논문, 그리고 연구보고서 등을 통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여러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음악교과 적용에서의 문제점을 특수학교 음악교육 관련 연구의 부족, 음악 담당교사의 전문성, 음악교과 수업에 필요한 교재의 부족, 그리고 교육과정의 문제의 4가지의 범주로 구분하였다.

#### 1) 특수학교 음악교육 관련 연구의 부족

일반학생의 예능교육 교과 연구는 1990년 초 한국교원대학교 부설 교과교육공동 연구소를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지만, 정인지체 특수학교의 예능 교과교육에 대한 연구의 축적은 많지 않은 현실이다(강순덕, 2004). 음악교육 연구에 대해서 조치원 교과서 박물관 담당 이창순 학예사(2006년 10월 29일, 방문 인터뷰)는 일반학교 음악교과 관련 자료는 많이 소장되어 있는 것에 비해 특수학교 음악교과와 관련된 연구 자료가 거의 보관된 것이 없는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한국교육개발원(1980, p.252)에 따르면, 1980년 특수학교 현황 분석 연구에 따르면 특수교사를 위한 각종 연수기회와 정기적인 교원 연수 프로그램이 부족함을 언급하였다. 국립특수교육원 박경숙 원장은 특수교사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위한 예산이 매우 부족함을 언급하였다(동아일보, 2001, 8, 21일자 25면 신문기사 내용).

## 2) 음악 담당교사의 전문성

현재 정신지체 특수학교의 예체능 교과지도에 있어 건강과 체육을 담당하는 전담교사가 있는 반면, 음악교육만을 담당하는 음악교사가 있는 특수학교는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영(2006)의 연구에 따르면 정신지체 특수학교 음악교과 시간에 가장 많은 음악활동은 가창으로 나타났으나, 많은 교사들이 조옮김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그에 대한 어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주 없이 지도하기도 한다는 조사 결과를 보고하였다. 또한 최명설(1997)의 연구는 현재 음악수업의 틀에 박힌 수업방식의 원인으로 음악전공자가 특수학교 음악수업을 지도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음악적 재능을 가진 특수아동의 재능을 음악수업에서 찾아주지 못하는 것을 보고하였다.

## 3) 음악교과 수업에 필요한 교재의 부족

기본교육과정 예능교과서 집필진으로 참여한 교사의 설명에 의하면, 특수학교에서 음악교육을 담당했던 함영기 교감선생님(2006년 11월 24일 전화 통화)은 1990년도에는 음악교과서가 없었기 때문에 1989년 예능교사용 지도서와 함께 일반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필요한 곡을 발췌해서 수업에 사용했기 때문에 음악수업을 진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였다. 예능교과 수업에 있어 그 목표에 부합되는 교육이 현재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이는 정신지체 장애 학생의 개인차와 장애 특성에 맞는 교재의 미비로 인한 것이라고 교사들이 인식했다. 또한 학습교재 및 기자재 활동실태에 관한 강순덕(2004)의 연구에 따르면, 현재 활용되고 있는 예능지도서의 이용도, 예능과 전자도서의 구성과 내용의 만족도가 낮아 현장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학교 내에 비치되고 있는 교육 자료가 부족하고 그 활동도 역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은경(1999)의 연구에 따르면, 정신지체 학생을 위한 적절한 교과서가 없기 때문에 담당교사의 체계적인 수업계획이 어려우며, 음악과 교육과정의 잘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박혜은(2002)의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정신지체 학생들의 음악교육을 위하여 가창, 기악, 이론, 그리고 감상 등을 고려한 다양한 교과서의 부족을 나타냈다. 또한 신문기사에서도 다양한 특수학교 교과서의 부족을 설명하였다(세계일보, 1992, 11, 2일자). 현재 정신지체 특수학교 음악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한국선진학교 음악담당교사: 임정은 선생님-2006년 11월 24일 전화 통화; 한국경진학교 음악담당교사: 금미숙 선생님-2006년 11월 24일 전화통화)의 인터뷰에 따르면 수업에 활용하는 자료는 일반교과서나 동요집 또는 인터넷 자료를 이용하고 있으며, 새로 출판된 예능교과 사용 지도서는 참고로 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 4) 교육과정의 문제

한국 경험중심교육과정의 내용체제에 나타난 특징연구에 의하면 음악과 목표들이 지니고 있는 경험중심적인 특징에 대해 전반적으로 볼 때, 이해, 태도, 기능을 지향하는

목표들이 고루 설정되어 있고, 이원성도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추정적이고 포괄적인 동사의 사용이 대부분이고 음악의 일상생활과의 관련 및 경험과의 관련이 몇 개의 목표에 조금 언급되어 있을 뿐이며, 경험수준의 계열성이 불분명하여 경험중심의 특성이 매우 약하게 교과목표에 반영되어 있다고 판단된다고 보고하고 있다(이원희, 이경섭, 1997, p.161). 또한 김영희(2005)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7차 기본교육과정에 있어서도 내용의 수준이 정인지체학생의 다양한 지적 능력상의 차를 고려하기에 미흡하며, 일정 수준의 지적능력을 가진 학생들의 교육목표를 학교급별로 제시하는데 그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10년 이상 특수학교에서 음악을 지도한 이병옥 교사는(2006년 11월 24일 전화 통화) “예능교과서는 참고만 할 뿐이다. 왜냐하면 아동들에게 계열과 행사에 맞는 노래를 가르치는데 교과서에는 없는 노래가 많아서 필요한 경우 다른 교과서나 동요책을 이용한다고 했으며, 교육과정을 개별적으로 구성하는데 단원과 실생활에 필요한 알맞은 노래가 부족하다.” 라고 설명하였다. 특수학교의 음악교과는 음악담당 선생님이 있는 학교와 선생님들이 매년 돌아가면서 음악교과를 담당하기도 하는데 학생들의 수준 차이가 크기 때문에 2000년에 출간된 예능교과서를 적용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담당교사들이 말하고 있다. 또한 “실제 음악교육에 사용하는 자료는 예능교과서, 멀티학습자료, 인터넷 사이트(주니어 네이버), 동요 CD를 사용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 자료를 복사해서 사용하고, 실제 교과서는 수준이 높아서 그대로 사용하기는 어렵다(임정은 음악담당교사: 한국선진학교(2006년 11월 24일 전화 통화).”고 설명하고 있다.

### III. 연구 결과

정인지체 특수학교 음악교육은 정인지체아의 인지, 정서, 그리고 기초생활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지적 제한을 보이는 정인지체아에게 음악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접근과 함께 최대한 구조화한 환경의 제공을 통해 성공적인 성취감을 갖도록 해야 한다. 이에 교육과정에서는 정인지체아에게 적합한 교육과정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런 교육과정은 음악과 교육과정을 계획하는 근간이 되며 교육과정은 사회, 문화, 정치적 상황, 부모와 학생 그리고 교사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따라서 정인지체아에게 전문적인 음악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정인지체 특수학교 초등부 음악과 교육과정이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지, 음악교과 내용이 어떻게 발달되어왔는지, 그리고 음악교과 적용에서의 문제점에 대해 여러 자료를 통해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인지체 특수학교 음악과 교육과정이 어떻게 발달되어 왔는가에 대해 교육

과정 제정 및 개정 참여자와 인터뷰, 도서, 신문, 그리고 인터넷 자료를 통해 알아본 것을 토대로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중심이 되는 범주를 다음의 3개 항목으로 구분하였다. 1) 음악과 교육과정 제정 및 개정 참여연구진의 직업배경 및 개정에 소요된 시간, 2) 음악과 교육과정의 목적, 3) 음악교과 시간배당의 변천사에 대해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음악과 교육과정은 연구에 참여한 연구진의 직업배경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방향성이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므로 1974년부터 4차에 걸쳐 음악과 교육과정 제정 및 개정에 참여한 연구진의 직업배경에 대한 변천을 알아보았다. 교육과정 제정 및 개정에 참여한 연구진은 특수교육을 지도하는 교수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특수학교 교사들이 협의진으로 함께 참여함을 알 수 있다. 협의진은 실제로 교과지도에서 더 전문성을 가지는 교사를 추천을 통해 선정하였다. 지속적으로 발전되는 교육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평가, 분석, 문제점을 조사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교육과정이 제정 및 개정되기까지는 1년~2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 긴 시간동안 많은 연구진과 협의진은 30회의 연구모임을 통해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음악과 교육과정의 목적은 아름다움을 느끼고 이를 창의적으로 표현함을 통해 생활에서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는 1차부터 4차까지 크게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3) 음악교과시간 배당에 따르면, 1차부터 4차까지 음악수업은 미술을 포함해서 주당 2-7시간으로 배당되어 있는 것을 보면 정신지체 특수학교에서 음악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을 볼 수 있다.

둘째, 음악교과 내용구성이 어떻게 발달되었는지에 있어서는 실제 특수학교에서 음악교재로 사용되는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1979년 음악교재, 1989년 예능교사용 지도서, 2000년 예능 기본교육과정 1, 2, 3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1979년 남양학교에서 만든 음악교과서에 나타난 곡목은 일반학교 음악교과에 있는 곡을 학년 수준을 낮춰서 그대로 사용하였음을 볼 수 있었다. 1989년 대구대학교 특수교육연구소에서 만든 예능교사용 지도서는 아동의 수준에 따라서 교육가능과 훈련가능으로 나누었다. 음악내용은 가창, 기악, 창작, 감상의 영역으로 구분하였으며 그림악보를 사용해 좀 더 쉽게 악기를 연주하도록 하였다. 교과에 들어있는 곡목은 모두 일반학교 교과에 있는 곡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2000년 예능 교과서는 10학년을 기준으로 학생의 수준에 맞게 교사가 지도할 수 있도록 1, 2, 3으로 나누어서 출간되었다. 예전의 교과서와 다른 점으로는 음악교과에 전래동요와 민요가 많은 부분을 차지함을 볼 수 있다. 또한 곡목 선정에 있어서는 일반학교 음악교과나 동요곡집에서 주제에 맞는 곡을 선정하여 수록하였다.

셋째, 음악교과 적용에서의 문제점을 알아보기 위해 음악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특수학교 교사와의 인터뷰, 학위 논문, 그리고 신문자료 등을 통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특수학교 음악교육 관련연구의 부족, 음악담당 교사의 전문성 필요, 음악교과 수업에 필

요한 교재의 부족, 음악과 교육과정의 문제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현재 일반학교 음악교육은 한국교원대학교 부설 교과교육연구소를 중심으로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정인지체아를 위한 음악교육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은 아직까지 마련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음악교육의 질은 음악을 담당하는 교사의 음악에 대한 전문성의 능력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인지체 특수학교에 음악을 전문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교사가 매우 부족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음악교과 수업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가창, 기악, 이론, 그리고 감상 등을 고려한 다양한 교재가 필요하지만, 적절한 교재의 부족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학교에서 교사의 재량으로 교재를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음악과 교육과정이 아동들 수준보다 너무 높게 설정되어 있거나, 내용 수준이 다양한 지적 능력의 차를 고려하기에 미흡함을 볼 수 있다.

#### IV. 결론 및 제언

이상과 같이 알아본 바에 따르면, 특수학교 교육과정은 경험중심을 강조하고 있으며 음악교육을 통해서 생활 속에서 음악을 즐기고 정서적 안정을 갖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4차의 교육과정 제정 및 개정이 이루어져왔으며, 음악교육의 교과내용도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몇 가지 점에서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21세기의 학교는 모든 학생의 능력과 요구에 부응한 교육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정인지체아의 경우 비록 반응은 단순하지만, 집단 구성원으로 참가하여 그 집단에 공헌하고 있다는 감정을 갖게 될 때 만족감과 자아 존중감이 증가하게 된다. 음악은 그들이 가진 능력의 정도가 어떠한지 간에 의미 있는 참여, 성공적 경험 등의 긍정적 강화를 가져온다. 이를 위해 앞으로 음악교과는 오르프와 달크로즈 음악교육 접근, 국악교육의 확대, 다양한 수업자료의 보급, 효율성 높은 교사용지도서, 적절한 음악선정, 그리고 검정교과서의 발행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의 변화 및 개선이 필요하다.

##### 1. 오르프와 달크로즈방식의 음악교육 접근

학생중심의 교육을 위해서는 개인의 능력에 기초한 교육이 시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아동의 능력에 따른 효율적인 음악접근법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아동의 수준에 맞춰 음악활동에 참여하게 하고 심미적인 음악을 완성하는 오르프 접근법과 달크로즈 접근법의 적용이 필요하다.

오르프 음악교육은 음악적 재능을 가진 아동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아동을 위한 것으로 음악적 능력의 차이와 무관하게 아동 모두가 각자의 능력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 공간과 역할을 갖는다. 특히 오르프는 소규모 그룹 형태로 진행되며 음악적 능력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들이 참여하고 서로 상호 협력하여 다양하고 재미있는 음악적 경험을 하도록 유도한다. 이지은(2004)의 연구에 따르면 오르프 음악활동을 통해 정인지체 유아들의 자조, 이동, 작업, 의사소통, 사회화 영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볼 수 있다.

달크로즈 음악교육 접근은 음악소리에 열중하여 동작의 표현 가능성을 경험하면 자신의 기대치를 넘어선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정현주의 공저, 2006). 특히, 박희경(2002)은 정인지체 아동의 음악특성을 보면 그들의 음악적 능력은 초등학교 1학년, 또는 유아 단계의 수준을 보이지만 음악에 대한 신체적 반응은 적극적인 특성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므로 달크로즈 접근법의 유리드믹스 활동은 정인지체 아동의 마음에 있는 상(象)을 신체, 청각 그리고 시각을 통해 일깨우고, 음악성의 표현, 지적인 이해의 향상을 도와 그들의 음악적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 2. 국악교육 확대

정인지체 아동은 기악곡보다는 성악곡에 흥미를 나타내며 특히, 동요, 민요, 전통민요 등에서 강한 표현의욕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박희경, 2002). 우리나라의 전래동요는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은 상상을 통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되어 아동들은 전래동요 부르기를 좋아한다. 전래동요는 가족이나 이웃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을 비롯하여,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동·식물 및 기후나 세시 풍속에 관한 이야기, 희노애락의 감정 등 우리 한국인의 총체적인 생활모습이 가장 명료하게 응축되어 있다. 전래동요의 구조적 특징은 노래의 길이가 짧고, 반복이 많으며, 단순한 리듬과 단순한 선율로 되어 있다. 또한 전래동요는 음역이 크게 넓지 않으므로 어린이들이 부르기에 수월하며, 강약, 리듬, 억양 등이 우리말과 우리 노래, 우리 음악의 관계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해줌과 동시에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한다. 또한 가사는 오랜 세월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는 과정에서 돌림노래처럼 단순 어휘의 반복으로 되어 있어 어휘를 익히기가 쉽고, 부르기 쉽고 발음하기 쉬운 단어들로 다듬어져 왔으며 곡이 주는 부드럽고 서정적이며 안정적인 느낌이 정인지체아의 흥미와 관심을 끌기에 매우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

민요와 전래동요는 메기고 받으며 부르는 특징을 갖고 있다. 메기는 사람과 받는 사람들이 흥겹게 호흡을 맞춰가며 노래를 완성해 가는 과정에서 사회적 관계를 향상시킨다. 이는 관계를 맺는 것에 어려움을 갖는 정인지체아동들의 사회기술 향상을 위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정인지체 아동들은 타악기에 흥미가 많으며 특히 진동이 큰 악기를 좋아한다. 우리의 사물악기는 음정을 갖지 않는 타악기로만 이루어져 있으며 울림도 크기 때문에 장애 아동이 접근하기에 쉽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전통적인 사물놀이가 정인지체 학생들에게 다양한 형식의 상호작용, 상호관련성, 대인관계 기술 등을 향한 통로를 열어주는 기호가 될 수 있다. 류효경(2007)의 연구에 따르면 사물놀이 음악활동은 정인지체 학생의 인지능력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정서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지속효과도 있음을 알 수 있다.

### 3. 다양한 수업자료 보급

일반학교 7차 이후의 음악과 교육과정의 목표는 음악적 표현력과 이해력 육성, 음악을 생활화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육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우리 주변에는 생활 속에서 음악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그러나 음악을 적극적으로 즐기기 위해서는 학교의 교육과정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음악에 접할 수 있는 매체의 보급이 필요하다. 정인지체 학생은 제한된 음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취감과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가창을 제공하려면 먼저 이들의 음역을 파악하여 능력에 맞는 곡을 선택하고 편안한 조로 조옮김하여 연습법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엄윤희(2005)의 연구에 따르면, 정인지체 아동의 말 속도가 일반아동보다 느리므로 빠르기에 있어서도 그들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특수교육 수업현장에서 이러한 음악적 특성에 맞춰 수업을 실시하기 위한 교사들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일선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정인지체아동의 특성에 맞춰 교사들이 손쉽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담당 특수교사 및 음악교육 전공자, 음악치료사 등의 전문 인력이 함께 협력하여 다양하게 조옮김이 되어있고, 노래의 빠르기도 조금 느리게부터 보통빠르기까지 속도를 조정한 미디어 자료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전문 인력을 통해 정인지체 아동들이 음악교과 수업시간을 통해서 각자 자신의 능력에 적절한 연주를 분배하여 음악 합주를 완성할 수 있는 구조화된 음악을 녹음한 매체와 함께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심미적 완성도를 추구하는 악기 합주를 통해 정인지체 아동은 성취감과 자존감이 향상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수업시간에 장애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종류의 악기를 제공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

### 4. 효율성 높은 교사용 지도서

교사용지도서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교과서에 담긴 내용을 보다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편찬된 도서로 교육과정의 해설, 교과 교육의 방향 제시, 교과서의 내용 해설, 교구학습 자료 제공 및 안내, 평가 방향 제시 등이 수

록되어 있어 교사에게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음악교과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인력이 부족한 현 실정에서는 효율성이 높은 교사용 지도서가 필요하다. 따라서 체계적이고, 다양하면서도 구체적이고, 창의적으로 적용가능 하도록 효율성이 높은 교사용 지도서를 제작하여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교사용 지도서의 보급과 함께 음악교과 지도 시에 필요한 커다란 악보, 악기 그림, 조옮김이 되어 있는 악보를 함께 보급하여, 교사들이 학교 수업시간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 5. 전문 인력에 의한 교육

일반교과와 달리 특수학교 음악교육의 특성상 음악전공과 특수교육을 함께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해온 전문교사가 매우 필요하다. 정인지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음악교육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는 학생의 음악적 발달 단계를 고려한 선곡이다. 그러나 정인지체 학교의 예능 교과서 곡들은 그들의 음악적 발달과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아동에게 적용되는 음악과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정인지체 아동의 음악적 발달 수준에 맞춰 곡을 다양하게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특수아동의 특성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장애아의 개별적 특성에 맞춰 음악을 체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음악교육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어 음악교육의 목적을 자연스럽게 성취하도록 도울 수 있는 음악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 인력에 의한 음악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러한 전문 인력이 음악과 교육과정에 참여하거나 음악교과를 담당하게 될 경우 장애아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매우 클 것이다.

## 6. 검정 교과서 발행

현재 정인지체 특수학교 음악교과서는 학생들의 특성이나 학교 특성에 맞춰 음악과 교과서를 선택할 수 없으며, 모든 정인지체 특수학교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일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음악교육의 질적 수준을 저해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2006년 1월부터 학교의 교과서 선택권을 확대하고 교과서의 질을 높이기 위해 초등학교에서도 단계적으로 검정교과서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다(김대원, 2006). 특히, 정인지체 학생의 경우, 학생들의 개인차를 고려한 다양한 음악교과서를 발간하여 아동에게 적합한 교과서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음악적 접근이 필요하다. 음악교육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음악교재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며, 음악교과서 편찬 및 음악수업 교재 개발에 전문인이 참여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1

이에 더하여 획일적이 아닌 각 정인지체아들의 능력의 차를 고려한 음악과 교육과

정의 개발 및 정인지체아들의 특성에 따른 음악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져야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필요들이 충족될 때 교육과정에서 명시하는 정인지체 특수학교 음악교육의 목적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과 함께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 정인지체아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순덕(2004). 정인지체 특수학교 예능 교과교육 실태 조사. 석사학위 논문. 대구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 교육부(1999). 특수학교 교육과정 해설(I) 총론.
- 교육인적자원부(2000). **기본교육과정 예능 1.**
- 교육인적자원부(2000). **기본교육과정 예능 2.**
- 교육인적자원부(2000). **기본교육과정 예능 3.**
- 김영희(2005).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정인지체아 부모의 중요도 인식. 석사학위 논문.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인숙(1982). 정인지체아의 음악교육 내용 및 가창 프로그램 연구. 석사학위 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 대구대학교 특수교육연구소(1982). **특수학교 교육과정을 위한 기초연구.** 대구: 대구대학교 출판부.
- 대구대학교 특수교육연구소(1987). **특수학교 교육과정 개정 기초연구: 특수학교 교육과정 개정 방향.**
- 대구대학교 특수교육연구소(1989). **정신박약학교 초등부(교육가능) 예능 교사용 지도서.**
- 대구대학교 특수교육연구소(1996). **특수학교 교육과정.** 대구: 대구대학교 출판부.
- 대구대학교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연구위원회(1997). **특수학교 교육과정 각론 시안 개발.**
- 대구대학교 사범대학(1982). **특수학교(급)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기초연구.**
- 문교부(1970). **특수교육 운영자료-특수학교 교육과정 개요 포함.**
- 문교부(1989). **정인지체 특수학교 교육과정 기준.**
- 박혜은(2002). 정인지체 특수학교의 예능교과서 분석과 음악교과 교육과정의 개선방안 연구. 석사학위 논문.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희경(2002). 정인지체 학생을 위한 음악수업 방안. 석사학위 논문. 한국교육대학교 대학원.
- 이성호(2004). **교육과정 개발의 원리.** 서울: 학지사.
- 이원희, 이경섭(1997). 한국 경험중심 교육과정의 내용 체제에 나타난 특징연구. **대구교육대학교 논문집**, 제 32집, pp143-186.
- 이지은(2004). Orff-Schulwerk 접근법을 이용한 음악놀이가 정인지체 유아의 사회성 및 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 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임은정(1997). 특수학급 학생들의 음악교육 실태와 개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정현주 외 공저(2006). **음악치료 기법과 모델.** 서울: 학지사.
- 최근영(2006). 정인지체 특수학교 음악교사의 건반악기 반주 실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 최명설(1997). 특수학교 음악수업 실태조사-서울, 경기, 인천지역 장애자 특수학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 한국교육개발원(1980). **특수학교 현황분석연구.**

- 현은경(1999). 정신지체 특수학교의 음악수업 실태와 담당교사의 교직 만족도. 석사 학위 논문.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 세계일보 1992. 11. 2일: 특수학교 교과서 다양하게 개발
- 동아일보 2001. 8. 21일: 국립특수교육원 박경숙 원장 인터뷰

# Historical Research of Curriculum Development in Mental Retardation Special Education Schools in Korea.

-with Focus of Musical curriculums on the Elementary Courses-

**Lee Suk**

Sook Myung Women's University

**Lee Nan-Bok**

Sook Myung Women's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the developmental history of through the first to the fourth enact or reform of the musical curriculum for Mental Retardation Special Education Schools taking elementary courses. To discover a way for the future music class, this study is due to find out the developmental history of musical curriculum of Mental Retardation Special Education School and its contents for them, and any problem which might have been in teaching curricular music to the handicapped. Through the study, this researcher hopes to lay a basic foundation for the efficiency of teaching children studying in special schools.

**Key words** :Historical Research of Curriculum Development, Mental Retardation, Musical curriculum for Mental Retardation.

---

논문 접수: 2007. 5. 5    심사 시작: 2007. 5. 10    게재 확정: 2007. 9. 26